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3428 www.seoulchurch.or.kr

새 예배당 시대 열리다.



서울교회 머릿돌 제막



입당 테이프 컷팅



입당 예배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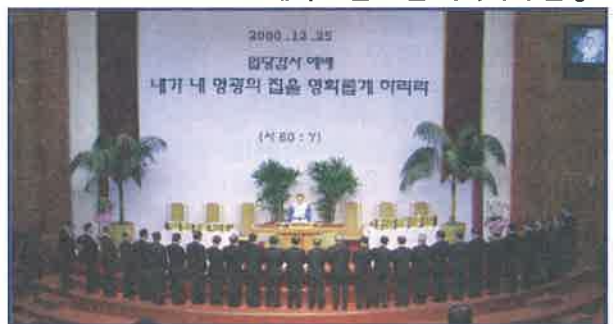
성탄 예배



그레이스 핸드 벨 콰이어의 찬양



감격의 입당 기도



입당 첫 성찬식

송구영신예배

해마다 신년 벽두에 드리는 송구영신예배가 오늘밤 즉 2001년 1월1일 0시에 드리게 된다. 지난해의 아픔과 허물을 회개하고 1년의 소원과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송구영신예배에 깊은 각오와 결단의 심정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배 시작 30분전 본당을 소등하게 됨으로 모든 성도들은 일찍 교회에 와서 자리를 잡고 눈물의 참회와 소원의 기도를 드린다. 새해 첫 시간을 찬송으로 여는 송구영신예배는 기도로 출발하여 말씀을 붙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입당감사 부흥성회

-1월17일(수)~19(금)-

새 예배당 입당 감사 부흥성회가 10대 행사 추진 위원회 프로그램

중 첫 번째 행사로 신년 1월17일, 18일, 19일 저녁7시부터 연 3일 동안 열리게 된다. 영적 부흥을 통한 숫적 부흥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이번 부흥회는 '오직 주께만 영광'이라는 주제로 김의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게 된다.

한편 18일(목), 19일(금) 이들 새벽시간에는 찬양대원과 남녀 전도회 청지기 수련회가 이중윤 목사를 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경통독 사경회

해마다 구정 연휴기간동안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 통독 사경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통독 사경회는 구약을 읽게 되는데 1월23일(화) 24일(수) 이들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읽게 된다. 따라서 1월24일 수요일부(오전11시) 예배는 드리지 않고 2부 예배(오후 7시) 한 차례만 드리게 된다.

열렸다 하늘 문이!

**이종운 시
박영선 곡**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호와의 양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열렸다. 하늘 문이

환희와 감사의 노래 부르자
내 사랑 서울교회여
너는 독수리로 태어났구나
내 어여쁜 자 서울교회여
네게는 힘찬 날개가 있구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진리와 함께
훨훨 날아라 하늘높이 날아라

폭풍을 좋아하는 너 독수리여
땅이 진동하는 폭풍 속에서도
유유히 하늘을 나른다
매일 새 힘 받아 사는
내 사랑 서울교회여

힘껏 날아라
열렸다 하늘 문이
힘껏 날아라
열렸다 하늘 문이

(이 시는 지난 입당 일에 박정선 집사가 곡을 붙여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른 찬양시다. 이 곡시는 칸타타로 부를 전 7장의 시를 쓰고 박정선 집사가 곡을 붙여 오는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말 꿈만 같아요
강민희 (1교구)**

얼마 전 새 예배당에 들어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새 예배당을 볼 때마다 정말 꿈만 같아요"라고 말씀드리자, 그 집사님은 "이건 꿈이에요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이렇게 기쁠까요? 언젠가부터 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새 예배당에서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집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피아노로 찬양 드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점점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시키시려나보다'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새벽예배 때에 반주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니 제 대답은 당연히 '예!일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기까지 하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몇 분께서 매일 새벽 힘들어서 어떻게 일어 나냐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당의 기쁨

그 일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매일 새벽 하나님께서 저를 깨울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의 찬양을 기다리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새벽예배를 새 예배당에서 드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기뻐서 가슴이 벅차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매일 새벽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꿈이에요. 꿈"

**금빛 핸드벨 흔들며
이미리 집사 (9교구)**

9년만에 다시 핸드 벨 지휘를 맡게 되고 더욱이 서울교회 그레이스 핸드 벨 콰이어를 창단케 하신 하나님께 먼저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2일 처음 핸드 벨 연습이 있던 날 우리 단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에 땀을 쥐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연습에 임하였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씩 강도 높은 훈련을 거듭하는 동안 손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와 어깨가 쭈시고 아파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의 순간을 그리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였습니다. 연습시설이나 장비의 미비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단원들은 담요를 스폰지 대신 사용하며 모든 장애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직장 생활에 피곤하고, 학교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결석자나 핑계하는 이 없이 일사불란한 단결과 각오로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던 새 예배당 입당일에 데뷔를 하게 된다는 설레임과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조금은 떨리고 흥분되기도 했지만 많은 성도들의 소리 없는 격려의 박수소리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당일의 순서를 감당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핸드 벨 콰이어는 하나님 앞에서 정과 성을 모아 금빛 핸드 벨을 흔들며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잠든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기수가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연습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김예환 권사 (7교구)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새 예배당에 입당케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6년 전 저희 부부가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이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서울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에 놀랐었습니다.

이 열정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되신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축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절제를 통한 물질적 헌신과 그리고 봉사, 또 오랫동안 합심하여 부르짖었던 쉼 없는 기도 에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 더욱 큰 믿음의 증거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 큰사랑을 누구라도 붙잡고 자랑하고 싶은 벅차 오르는 이 기쁨이 감격 이 축제를 하나님, 기쁨 받아주시겠지요. 그동안 피 땀흘린 봉사자들의 손길이 새 예배당 이곳 저곳에 배어 있음을 느끼며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이곳에 주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송자 집사 (1교구)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 예배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많은 봉사자들이 앞다투어 열심을 내어 일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입니다. 밤 늦도록 모두가 분주히 막바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우리 서울교회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난 9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가까이에서 온 가족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었다가 때가 차 우리를 다시 들어 대치동 서울교회 가까이에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가까이에 불러주신 주님께 순종하며 봉사하며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 가까이에서 좋은 목자를 만나 신앙 생활하는 것 보다 더 큰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주위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배가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기열 (유아부)

우-와!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다니요? 아침마다 잠 잘 때마다 두 손 모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는 착한 어린이 훌륭한 사람되겠습니다.

안식년을 맞으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

노문원 장로 (11교구)

그 동안 앞만 보고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때로는 게으름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새로운 자세와 각오를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가 더욱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침묵을 배우는 기회

김광신 장로 (1교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주가 있고 역사가 있고 세상이 움직인다. 그러나 천지창조의 기록에 보면 옛세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기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으며 모든 인류에게 주신 명령도 '옛세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이레 되는 날에는 안식하라'고 하셨다.우리도 안식의 의미를 찾아야겠다. 쉼을 통해 거룩한 침묵을 배우고 실력을 배양하여 나를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으면서 일하지 못하는 안식년 기간 동안은 신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더 깊고 높고 넓고 큰 사람이 되려고 깊은 수면을 가져보고 싶다. 안식이 끝나는 그

날이 오면 나는 은빛 날개를 펴고 높은 하늘에서 사뿐히 대치동의 서울교회 십자가 탑 위에 내려앉으리.....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고

임광식 장로 (11교구)

나 같은 죄 인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서울 교회를 세우시고 새 예배당을 짓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후손들을 위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손들을 위해 축복기도하는 원로 장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권사직을 은퇴하면서

이옥너 권사 (4교구)

은퇴라는 말을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들었습니다. 타이어를 재생하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현직에서 물러나지만 재생된 타이어처럼 다시 쓰임받는 심정으로 기도와 봉사의 삶을 살아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것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장족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다짐합니다.

심재울 권사 (3교구)

영과 육이 연합한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목숨 다하도록 섬기며 살립니다.

< 이웃교회에서 바라본

새 예배당 입당에 대한 기대>

이준한 장로(서울중앙교회)

내가 사는 고층아파트에서 밖을 내다보면 수많은 십자가가 보인다. 이 험한 세상에 다른 무엇보다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가를 생각한다.

성전건축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 속에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의 띠를 띠우고 달려가야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중의 일 이구나하고 깨달아진다. 서울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믿는이들만의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쌍한 이웃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사용되어 이들을 돕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크게 감당하기를 기대해 본다.

교회의 머리되시고 주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복된 날, 기쁜 날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서울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되기를 기원한다.

❖ 2000년도 10대 사건 ❖

순례자는 우리 교회의 2000년도 교회 내 십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발표했다.

- ① 새 예배당 입당 ② 교구, 다락방 제도 개편 ③ 은빛 찬양대, 살림 경로대학 시작 ④ 집사10명 권사37명 취임 ⑤ 멀티미디어 봉사단 창단 ⑥ 장로 안식년제 실시 ⑦ 직능별(학원, 의료, 실업인) 선교회 출발 ⑧ 그레이스 핸드 벨 창단 ⑨ 에바다부 창설 ⑩ 건축 현장 파수꾼 및 자원봉사등이다.

이 밖의 행사 중 꼽을 수 있는 것은 홍해작전, 한마음 한가족 축제, 성경통독 사경회, 70인 전도대 연중 운영, 농촌 전도대 파송, 목회자 세미나, 건축바자, 농어촌 100교회 지원, 성경대학 리더 양성반, 다락방 찬양대회, 성경삼승대회, 탈북 난민보호 UN 청원 운동, 비전2020운동, 육사 세례식 등 많은 사건과 행사들이 있었다.

♡ 순결 서약식 오리엔테이션 ♡

오늘 저녁 8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신년 1월7일 찬양 예배시에 있을 순결 서약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8:30~9:00 경건회/ 9:00~9:30 온전순결 특강/ 9:30~10:00 청소년과 성에 대한 비디오 상영/ 10:00~10:30 기도회의 순서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서약을 하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입증포명

대치동은 어떤 곳?

김시환 집사 (5교구)

“아이들 때문에 한번 이사오고 나면 떠나기 힘든 동네”로 소문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79년말 은마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80년대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밀집하면서 8만 5000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중산층 아파트인 우성, 선경, 청실, 국제, 삼성, 은마, 미도, 쌍용, 동아 아파트 등이 위치해 있고 동서로 남부순환로와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아파트 숲을 가르며 지나고 있고 남북으로 영동대로가 뻗어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좋다.

대치동은 각종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대한민국 교육특구”로 불리울 정도로 보습학원이 많은 동네로 유명하다. 강남교육구청 관내 (서초구와 강남구) 학원 수 570개 중 대치동에만 무려 126개가 몰려 있다. 단대부중, 고, 대치초등, 대곡초등, 대명중, 휘문중, 고, 등 명문교들이 소재해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력이나 학력 수준이 유난히 높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한국 경영자 총 연합회가 발간한 <99년 판 노동경제연간>에 수록된 <경영계 인사록(이사이상)>에 따르면 총 수목인사 수는 4천 893명이며 이중 10.1%가 대치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체 임원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98년에는 IMF 체제의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에서 부자동네라는 압구정동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금을 내놓은 동네로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80년대 대치동 일대는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빼곡이 들어차기 시작한 이후 약 20년이 지난 요즘, 이 지역은 다시 40~60층의 초고층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며 서울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다.

이제 대치동에는 온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금과 기도와 헌신이 그대로 배어있는 하나님의 집 서울교회가 들어서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적인 <복음의 특구>로 각종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하영수 장로 (1교구)

새 예배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는 예배당 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성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 (1) **사용신청:** 모든 장소의 사용은 사전에 사무국에 사용신청을 하고 부서의 책임자가 열쇠를 받아 사용 후 반납토록 한다.
- (2) **정소:** 각 부서는 사용하는 호실에 대한 청결 상태를 책임지고 유지한다.
- (3) **분리수거:**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부서장 책임하에 1층 옥외에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분리하여 처리한다.
- (4) **전열기 사용:** 8층 만나홀 외에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취사도구와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다.
- (5) **냉난방과 환기:** 겨울철 난방중에도 계속 외부의 공기를 흡수하여 실내를 쾌적한 상태가 자동으로 유지되므로 외부창문을 열지 않도록 한다.
- (6) **주일 상인 출입통제:** 부서별 주일 간식은 가급적 자체하되 부득이한 경우 식당을 이용하고 외부 상인이 주일에 떡 등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한다.
- (7) **식당정결:** 일반 성도의 주방출입을 금한다. 식당봉사자는 위생복 차림으로 외부로 다니지 않도록 한다.
- (8) **대중교통이용:** 주일에는 지상주차장을 금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되 직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성도들의 주차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를 환영한다.
- (9) **부착물:** 어떤 벽에도 못을 박지 말고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한다. 부착물은 사무국의 승인을 받는다.

없이 바로 첫 찬송 6장을 부르게 된다. 아울러 1부 가족 예배와 3부 청년 예배시에는 성서 교독 시간에 십계명 교독으로 대치한다.

3부 예배시간은 2시이나 1시30분부터 펄그림 찬양단의 인도로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갖게 된다. 1부 예배는 9시~9시50분까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9시50분부터 10시까지 각 부서로 이동하여 30분간 공과 학습시간이 있게 된다. 1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과 성도들은 10시부터 공과 학습을 먼저 하고 11시20분 2부 예배에 참석하면 된다. 단 오늘의 공과 학습은 반편성과 오리엔테이션으로 대치한다.

농어촌100교회 접수현황 (계속)

- 1교좌: 김제술, 서상근 김예환, 정무균 이영희, 황경래 김정희
- 3교좌: 스테반회
- 5교좌: 마리아 전도회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월1일(월) 오후5시 비전홀에서 당회원을 초청 신년 하례회를 갖는다.
- 고경선 목사 이은희 사모 득녀
- 민순구 장로 이사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화 031) 984-9192
- 신순우 집사 경원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통과
- 영락교회 김계숙 집사 피아노1대기증
- 광림교회 조건규 집사 분당, 목양실 커튼기증
- 이병권 성도(2교구) 2층 칼빈홀 탁자 13조 기증
- 정하자 집사 굴 25박스 기증
- 이명근, 이병진 이병욱 피아노1대 기증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전기집 장로 원영에 집사 (2교구)

오늘부터 예배순서가 변경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긴급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은 희망찬 새 예배당 시대의 예배순서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게 된다.

먼저 목회자의 기원 후 찬양대의 화답송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3. 임명받은 사명자를 위하여
4. 농어촌 100교회운동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